

금호 보유 주식 가격 놓고 밀당...자회사 분리매각 여부 관심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격임 돌입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낙점되면서 최종 매각까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연내 매각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본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가격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가능성이 있지만,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직접 2차 매각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호 측도 협상을 유찰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 등은 현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본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다. 통상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인수 조건과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 매각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HDT 등 6개 회사도 함께 '동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상 타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7일 본입찰에서 아시아나 매입 가격으로 2조 4000억~2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주 가격은 4000억원 아래로, 신주 가격은 2조원 정도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주 가격을 4000억원 아래로 평가했다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박상구 전 금호 회장 측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호 측은 구주 가격을 높게 받길 원한다. 구주 대금은 모두 금호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너진 금호그룹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금호는 아시아나와 자회사가 빠져나가는 사실상 그룹에 금호산업과 금호고속만 남게 돼 사세가 급격히 축소된다.

현산 측 계산법은 다르다. 자분을 투입하자마자 금호로 빠져나가는 구주에는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하고 아시아나에 직접 투자되는 신주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산이 신주 가격으로 써낸 2조원이 아시아나에 투입되면 현재 660%에 달하는 부채비율은 277%까지 떨어져 재무구조가 한층 안정

구주가격 4000억원 이하 평가

경영권 프리미엄 거의 인정 안해

금호 불만...현산 "아시아나에 투자"

연내 무산면 채권단이 매각 주도권

된다.

채권단도 7월 예비입찰에서 신주 가격을 최소 8000억원 이상 써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산은이 4월 인수한 아시아나 영구채권(5000억원)과 추가로 지원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산은은 아시아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주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만, 금호의 채무와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무조건 구주 가치를 깎아내릴 수만은 없어 양측이 적정선에서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가 이미 현산 측과 물밑 접촉을 통해 구주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현산 측이 구주 가격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 분리 매각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아시아나 자회사를 모두 인수하는 현산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규제를 준수하려면 자회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도 정리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지배구조가 HDC→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자회사순으로 재편된다. 아시아나 인수 뒤 증손회사가 되는 상장사 4곳 중 에어서울과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아시아나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나HDT(76.20%)와 에어부산(44.20%)은 추가로 나머지 지분도 사들여야 한다. 이 때도 적잖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자회사 일부는 매각하거나 현산 그룹 계열사가 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 주도도 아시아나 2차 매각이 추진된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가 구주 가격을 이유로 이번 매각을 유찰시킨다면 매각 주도권이 산은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산은이 구주 가격을 금호 의지와 상관없이 매겨 처분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 한 매각 조건이 최종 조율되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각 작업이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 남용” vs “적극 행정”...검찰 수사 칼날 어디까지 갈까

광주 민간공원 특례 수사 쟁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과 광주시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최종 선정까지의 행정 행위를 놓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 공모 아래 이뤄진 범죄"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평가 결과표(공문서) 유출→업체 이익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부정 방침→제안심사위 감사결과 수용 거부 및 파행→정중제 행정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의 일련의 행정 행위가 "짜인 각본"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과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운영팀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3명의 고위 공직자가 공모한 혐의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중앙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주)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현재 정 부시장 등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특정감사 착수행위(특정감사관 남

“고위 공무원 공모한 범죄”

“소송 불씨 차단한 정상 행정”

검찰·광주시 팽팽히 맞서

용) ▲(민간업체 제안서를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안전사항 누락 ▲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중용 등이다. 검찰은 우선 정 부시장 등이 특정감사에 착수한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8일 우선협상자 발표 후 일부 업체가 제기한 평가 공정성 시비에 따라 시정을 총괄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지지 아래, 윤 감사위원장과 함께 특정감사에 나섰음에도 감사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판단에는 평가 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됐고, 공모지침(민간사업제안 요청서 19조)에서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광주시가 탈락업체 이의를 받아들여 특정감사에 나섰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논리라면 각종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감사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이 이정삼 당시 실무 국장과 공모 아래 업체 선정 평가 요소

인 유사 사업실적, 공원 조성비용 관련 정중제 사항을 업체 선정권한을 가진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도 직권 남용 및 제안심사위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로 최초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진 반납하게 한 행위를 두고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감사결과 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공문을 공문복지과로 보냈다. 공문 주요 내용은 당시 중앙 1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토지가격산정자료)가 감정평가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이어 녹지과는 도시공사에 이와 유사 공문을 보내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권 포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 부시장 등 광주시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아니라 탈락업체로부터 불거질 소송제기, 그에 따른 행정 대혼란을 막은 적극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 부시장 측은 우선 감사 결과, 중앙 2지구의 경우 애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에게 감점 사유인 '업체명 및 유사사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만 13개의 감점 대상이 있고, 사업실적과 관련해 금호산

업과 호반건설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문제가 있는데 한양에는 0.5점을, 금호산업에는 2.5점을 부여하는 등 명백한 평가 오류가 한 둘이 아니어서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앙 2지구 사업의 경우 감사 전 최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금호산업(주)가 88.3점, (주)호반건설이 87.6점으로 단 0.7점 차이였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정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광주시의 뜻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검찰 의심에 대해서도 광주시 측은 평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부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반영 등을 놓고 파행을 빚은 밤, 이 시점이 다음날 아침 제안심사위에 부시장도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행정업무 절차"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은 공인원칙에 시행(2020년 7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언론과 관련 업계 등 광주 전반에서 관심을 지켜보는 사안이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업체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정 부시장 등이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업체 변경을 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슬라에너지